

# AI에 꽂힌 JY, '뇌 신경망' 열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벤지오·세바스찬 승 교수 만나  
AI 사업발전방향·전략 등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한번 인공지능(AI) 혁신 행보를 이어갔다.

이 부회장은 6일 몬트리올대학교 오슈아 벤지오 교수와 프린스턴대학교 세바스찬 승 교수를 만나 AI 사업 발전 방향과 삼성전자의 AI 전략 등을 논의했다.

벤지오 교수는 AI 분야 세계 4대 '구루(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로, 2018년 컴퓨터 과학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한 권위자다. 차세대 음성인식 성능 혁신을 위한 신경망 네트워크 설계 및 학습 알고리즘 개발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왔다.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벤지오 교수와 AI 연구를 진행해왔다. 우선 2017년 몬트리올 AI랩을 설립하고 벤지오 교수와 함께 영상/음성 인식, 자율주행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두번째)이 26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임직원들로부터 제품설명을 듣고 있다. /삼성전자

AI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4~5일 열린 '삼성 AI포럼 2019'에서도 연사로 초청해 메타 러닝과 강화학습 등 딥러닝 분야 핵심기술을 소개했다.

세바스찬 승 교수 역시 뇌 신경공학 기반 AI 연구를 개척한 세계적인 석학 중 한 명이다. 2018년부터 삼성리서치에서 연구 분야를 총괄하는 CRS

를 겸직하며 AI 전략 수립과 선행연구 자문을 맡아 삼성전자와 인연을 이어왔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각의 한계를 허물고 미래를 선점해 가자"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내부나 외부나... 막 오른 KT 차기회장 경쟁

후보군 37명 결정... 명단 비공개  
이사회 심사기준에 따라 1인 확정  
차기 회장 주주총회사 최종 선임

내년 3월부터 3년 임기를 맡을 KT 차기 회장 후보군이 37명으로 결정됐다.

KT 지배구조위원회는 공개모집 및 전문가 추천을 통한 사외 회장후보자군 구성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KT 이사회는 사외 회장후보군 구성방법으로 공개모집과 전문가 추천을 받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 회장후보자군 구성을 위해 이 사들은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에 걸쳐 공개모집 및 전문가 추천을 받아 사외 회장후보군 구성을 마무리했다. 5일 오후 6시까지 총 21명



광화문 KT 본사 /뉴시스

의 후보자가 접수했으며, 복수의 전문가를 통해 9명의 후보자를 추천 받아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또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사내 회장후보자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7명으로 압축한 상태다. 전체 차기 회장후보는 공모 21명, 기관 추천 9명 등 사외 회장후보군 30명과 사내 회장후보군 7명 등 총 37명이다.

KT 지배구조위원회는 후보자 명예 보호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단

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정관 및 지배구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사내·외 회장후보자군을 심층 검토해 회장후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한다.

KT 회장후보심사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층 평가해 심사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장후보자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KT 이사회는 회장후보자들 중 1인을 회장후보로 확정해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KT 차기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KT 지배구조위원회 관계자는 "최적의 회장을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원활한 회장 선임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현대글로벌비스-한전, 전기상용차 활성화 MOU

### 충전인프라 구축... 미래 전기자동차 시장 선점나서

2020년 전기상용차 본격 출시  
한전 직영으로 충전 서비스

현대글로벌비스가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손잡고 전기상용차 활성화를 위한 충전소 구축사업에 나선다.

6일 현대글로벌비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9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19)'에서 한전과 '전기상용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금배 현대글로벌비스물

류사업본부장(전무)과 이종환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전기상용차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졌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글로벌비스는 전기상용차를 적극 운영하는 동시에 자사 주요 물류 거점 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한전은 전기상용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 지역 거점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양기관의 협력 결과물인 충전소는 전기상용차가 본격 출시되는 2020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영세 충전사업자가 아닌 한전이 직영하는 충전설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충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대글로벌비스가 한전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은 전기상용차의 미래 성장이 예견 되기 때문이다.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세계적인 완성차 제조사들은 앞다퉈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상용차를 개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시그니처 라인업. /LG전자

## 시그니처 라인업, 우수디자인 상 석권

2019 우수디자인

올레드R 대통령상 외 26개 수상

LG시그니처가 국내에서도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해냈다.

LG전자는 6일 '2019 우수디자인'에서 26개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LG시그니처 올레드R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올레드R의 사용자경험(UX)도 따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세계 최초 롤러블TV임을 활용해 기존 TV에서 경험할 수 없는 3가지 뷰를 구현해냈다는데 높은 점수를 받

았다.

LG 시그니처 에어컨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최초 8K 올레드 TV인 시그니처 올레드 8K는 특허청장상을, LG 시그니처 상냉장·하냉동 냉장고는 국가기술표준원상을 받았다.

그밖에도 상냉장 세미 빌트인 냉장고와 LG 퓨리케어 상하좌우 정수기가 국가기술표준원상을, 빌트인 오븐패키지와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 LG 시네빔 레이저 4K 프로젝터 등이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받으며 LG전자의 디자인 우수성을 증명해냈다. /김재웅 기자

## '멀티브이'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선정

(시스템 에어컨)

빅데이터·AI 활용 제품 경쟁력 ↑

LG전자가 시스템 에어컨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LG전자는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 18회 기계의 날 행사에서 시스템 에어컨으로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최초로 6년 연속 이번 상을 받게 됐다. 주인공은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품 경쟁력을 높여 수상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은 2013년



LG전자는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로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상을 받게 됐다. /LG전자

부터 매년 기계의 날마다 시상해왔다. 기계 산업인 자긍심 제고와 기계산업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재웅 기자

## 삼성전자, 오디오 기술력도 '초격차'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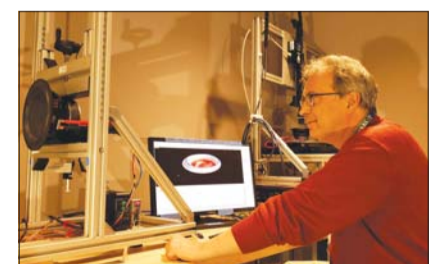
국제 오디오 공학회 2019  
논문 상위 10개 중 3개 차지

삼성전자가 수준 높은 오디오 기술력을 전세계에 증명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국제 오디오 공학회(AES) 2019'에서 선정된 논문 상위 10개 중 3개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AES는 70여년 역사를 가진 업계 최고 공신력을 가진 학회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다.

선정된 논문은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SRA) 소속 오디오랩에서 제출한 3편이다. ▲음향 성능 최적화를 위한 스피커 포트 디자인 ▲소리 왜곡을 보정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에서 연구원이 테스트를 하는 모습. /삼성전자

하는 비선형 제어 기술 ▲근거리 반응 기술을 이용한 헤드폰 음향 개인 최적화 기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포트형 스피커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소리 왜곡을 제어하며 소리를 일정하게 최적화해주는 내용이다. /김재웅 기자